

李朝時代の 住生活에 關한 小考

—上流住宅의 平面分析을 中心으로—

A Study on Housing Problem of The Yi-Dynasty

—With a Focus on The House—plan
Analysis of Upper—class—

目 次

- I. 序 言
- II. 卜地選定에 關한 思想
- III. 住宅平面構成에 反映된 住生活의 面貌
 1. 建築規制
 2. 平面上에 反映된 住生活의 面貌
- IV. 住宅構造와 室內裝置에 나타난 住生活의 情趣
 1. 建物の 外觀
 2. 内部造作과 室內裝置
- V. 結 語
參考文獻

동덕 여자 대학

Dong-Duk Women's College

교 수 이 인 회
Prof. Lee In Hi

Summary

This article has an aim to study what kind of housing system our ancestors lived with during the Yi-Dynasty by analyzing the house-plan of upper-class society of that period since the house of lower-class was very insignificant as it has always been while the house of upper-class represented the period. With this study we can clearly see how we ought to go in the right direc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our Korean genuine housing by renovating and renewing those unreasonable points in our traditional housing system. It is firmly believed that we should-keep our own unique traditional lovely housing system from being destroyed by the whirl-wind of modernization and the demand of rationalism and efficiency-centered idea of the western mind. From this view point we think it is very urgent to see this matter correctly and find out the real way how we should do in order to keep our own good things for ourselves and make them preserved.

This essa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as follows:

1. Thoughts on selecting the good housing area.

2. The aspect of housing reflected upon composing the house-plan.

3. The characteristic sentiments reflected upon the interior construction and decoration,
We can find several characteristic points in the housing system of the Yi-Dynasty as follows:

1. In Korea, the thought of natural geography (Poongsu-seul), apart from scientific view, which seems rather superstitious to us, modern young people, has been highly recommended by the people of our country from old days connected with the prosperity of our life. They also neglected about the social circumstances such as, market,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which are now considered as very important. They only put their concern on this natural environment which they called Poongsu

2. In construction of house-plan, the house was not built for living with reasonable convenience, but for showing prestige of the upper-class people reflecting its social organization under the feudalism of the period. Furthermore, the most of the housework was done actually by those servants and maids of the house, and not the family themselves. The only concern for the upper-class people was to show off their authority, and so this sense of authority was revealed in the housing as well.

3. Both the outside appearance of the house and the interior decoration or the furniture are all very artistic and lovely. They were so refined and beautiful with their delicate taste which truly seem against our modern rationalism and uniformity.

I. 序 言

오늘날, 우리의 住生活은 家庭生活的 合理化를 試圖하고 能率爲主인 平面과 內部施設에 만 留意하여, 오랫동안 持續되어온 傳統的인 韓國的 住生活上의 慣習이 漸次 消滅되어가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우리 韓國의 住生活은 衣生活과 더불어 世界化되어가는 風潮에 따라, 都市를 中心으로는 洋屋構造로 變化되어가거나, 二重生活構造에서 오는 韓屋과 洋屋과의 折衷的인 住宅構造의 影響을 反映시키고 있다.

이는, 現在 우리 나라의 住生活이 複雜化되고 現代化하여 가는 傾向을 顯著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人口膨脹에 따르는 高層化 現象은 世界的인 共通傾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高層化를 통한 좁은 空間의 利用을 如實히 示顯하고 있다.

이에, 過去の 民衆生活的 傳統的인 典型的 住宅은 6·25事變으로 破壞되었거나, 近代化의 물결에 차츰 除去되어가거나, 木造이므로 腐蝕되어 崩壞過程에 있으니, 在來式 韓國的

住宅樣式의 而貌를 찾아보기가 漸次 어려워진 것이므로, 住生活에 關해 歷史的 側面에서 考察해 보는 것도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民族文化의 한 斷面으로 具現되었던 우리의 傳統的 韓國住宅의 平面을 分析함으로써 當時의 住生活의 特徵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위에서 論한 바와 같은 隘路로, 오늘날 保存되어 있는 當時의 住宅은 全혀 없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므로, 秘苑內의 演慶堂은 兩班階級의 上流住宅을 模倣하여 지은 建物이니, 이를 中心으로 하고, 또 論者가 어려서 살던 住宅의 而貌를 더듬어 李朝時代에 있어서의 住生活 樣相을 分析해 보고자 한다.

Ⅱ. 卜地選定에 關한 思想

李朝時代에 있어서는, 卜地 選定에 關한 思想이 支配的이어서, 住宅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卜居할 수 있는 地의 選定을 第一要件으로 삼았었다.

卜地는 예로부터 山川, 風景, 排水, 當陽한 곳等 地勢에 留意하면서 東洋의 固有한 風水說과 合流시켜, 地官에게 依賴하여 陽基를 選擇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地勢의 美와 醜를 判斷하고, 利와 害를 豫感하면서, 自家와 自族의 發展의인 吉地를 選擇하여 將來의 幸福과 希望을 住居에 두려는 것으로, 이는 人類本然의 本能的인 要求와 態度라고 보겠다.

「擇里志」의 卜居總論에서는,

『大抵 卜居之地 地理爲上 生利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 非樂土也 地理雖佳 生利乏 則不能久居 生利雖好 地理惡 則亦不能久居 地理及生利俱好 而人心不淑 則必有悔吝 近處無山水可賞處 則無以陶瀉性情』

『대저 살 터를 잡는 데에는 첫째 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 生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 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山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地理는 비록 좋아도 生利가 모자라면 오래 살 곳이 못되고, 生利는 비록 좋더라도 地理가 나쁘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된다. 地理와 生利가 함께 좋으나 人心이 착하지 않으면 반드시 後悔한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道風한 만한 山水가 없으면, 情緒를 化창하게 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住居에 合當한 地理에 對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何以論地理 先看水口 次看野勢 次看山形 次看土色 次看水理 次看朝山朝水 凡水口虧疎空濶處 雖有良田萬頃 廣廈千間 類不能傳世 自然消散耗敗 故尋相陽基 必求水口關鎖內開野處着眼 然山中易得關鎖 而野中難以固密 則必須逆水砂無論 高山陰坂有力 溯流遮欄堂局 則吉 一重固好 三重五重 尤大吉 可爲完固綿遠之基矣 凡人受陽氣以生 天乃陽光也 少見天處 決不可居 是故 野愈曠 則基愈美 須使日月星辰之光 燦然恒臨 風雨寒暑之候 盎然得中 人才多出 而

亦少疾病 最忌四山高壓 日晚出而早入 夜或不見北斗 靈光既少 陰氣易乘 則或作神叢鬼窟 朝夕嵐瘴之候 又使人易病 此所以 峽居不如野居 而大野中 孱山周回 則此不可以山指 而統以野稱之者 由天光不隔 水氣遠通也 至於高山之中 亦須開野處 方可作基 凡山形祖宗 有堪輿家 樓閣飛揚之勢 主山秀麗端正 清明軟爛者爲上 後山綿綿渡野 忽起高大 峯巒紆迴枝葉 結作洞府 如入宮府之內 而主勢穩重豐碩 如重屋高殿者次之 四山遠却平濶 而山脈落下平地 遇水即止 爲野基者又次之 最忌 來龍懶弱 頑鈍而無生色 或破碎欹斜 而少吉氣 凡地無生色吉氣 則人才不出 此所以不可不擇山形也 凡村居 無論水中水邊 土色砂土堅密 則井泉亦清冽 如此 則可居 若赤粘黑礫黃細 則是死土也 其地所出井泉 必有嵐瘴 如此 則不可居 凡無水之地 自不可居 山必得本配水然後 方盡生化之妙 然水必來去合理然後 方成鍾毓之吉 此有堪輿家書 姑不具論 然陽基 異於陰宅 水管財祿故積水之濱 多富厚之家 名村盛塢 雖山中 亦有溪澗聚會 方爲世代久遠之居 凡朝山 或有飽惡 石峯或有欹斜 孤峯或有崩落之形 或有窺闥之容 或有異石怪巖 見於山上山下 或有長谷冲砂 見於左右前後 皆不可居 必也 遠則清秀 近則明淨 一見令人歡喜 而無峻增憎 惡之狀 則吉 朝水則謂水外水也 小川小溪 逆朝爲吉 至於 大川大江 決不可逆受 凡逆大水處 無論陽基陰宅 初雖興發 久則無不敗滅 不可不戒 來水 又必與龍 向合其陰陽 而水屈曲悠揚而朝來 不可一直如射 是故 將欲建宅立舍 爲子孫 傳世之計 則於地理不可不相 而擇之 而此六者乃要旨也』

『住宅에 適當한 地勢를 말한다면, 먼저 水口(山과 山 사이에 물이 빠져 나가는 곳)를 보아야 하고, 다음엔 들관의 形勢를 살펴야 하고, 다음엔 山形을 보아야 하고, 다음엔 朝山과 朝水(正面에 있는 앞의 山과 물)를 살펴야 한다. 무릇 水口가 이즈러지고 영성하고 空濶한 곳에는 아무리 良田이 萬 이량이 있고, 넓은 집이 千間이 있다 하나, 집 자리가 自然과 함께 오래도록 傳하지 못하고, 저절로 消散되고 耗敗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므로 집터를 찾아 보는 데에는, 반드시 水口가 긴밀하게 어울려 겨안고, 野色이 넓게 열린 곳에 着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山中에는 어울려 겨앉인 곳이 많지마는 평평한 들 가운데는 固密한 것을 얻기 어려운 것이니, 물이나 砂(물보다 약간 높이 있는 흙과 모래)가 거슬러 막은 것은 無論이요, 높은 山과 그늘진 언덕이 힘차게 堂局(住宅이 있는 洞里)을 가로 막으면 吉한 것인데, 한 겹도 좋으나, 세 겹 다섯 겹으로 重重疊疊하게 막으면, 더욱 大吉해서 可히 完固하고, 길고, 멀게 傳할 터전이라 할 것이다. 무릇 사람은 陽氣를 받아 사는 것이니, 하늘은 곧 陽의 빛이다.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는 決코 살 곳이 못되는 것이다. 이런 緣故로 들이 더욱 光明하면, 더욱 아름다운 것이니, 모름지기 日·月·星·辰의 빛이 항상 찬란하게 臨하여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더운 氣候가 中庸을 얻은 뒤라야 人才가 많이 나고, 또한 疾病이 적은 것이니, 四面에 山이 높이 둘러서, 해는 늦게 뜨면서 일찍 들어가고, 밤엔 北斗七星이 비치지 않는 곳은 가장 忌하는 곳이다. 靈氣로운 빛이 적으면, 陰鬱한 기운이 음지겨서 귀신의 소굴이 되기 쉬운데다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는 惡한 瘴氣는 사람을 病들게 하기 쉽다. 이러하므로, 山峽 속에 사는 것이 平野에 사는 것

만 못한 것이다. 大野 가운데도 孺山이 두루 둘러 있다면, 이것은 산이 아니라 들이라 일컬으니, 하늘 빛이 가려지지 않고, 水氣가 멀리 通해 있는 까닭이다. 高山 속에도 활짝 들이 열려진 곳엔 住宅의 터를 잡을 만한 곳이다. 무릇 山勢의 祖와 宗이 勘輿家들의 흔히 말하는 날라갈 듯한 形勢가 있으면서, 主山이 秀麗하고, 端正하여, 淸明하고 軟하고 고우면 上이 되는 것이요. 뒷산이 綿綿이 들을 건너가면서, 忽然 높고 크게 일어나고 봉우리와 가지와 잎이 들리는 듯하여, 洞府의 結局을 만들어 마치 宮府에 들어가는 듯하면서, 主山의 形勢가 穩重하고 豐碩하여 큰 집과 높은 殿閣 같이 된 것이 다음이 되는 것이요. 四面의 산이 훨씬 멀게 물러가 平濶하면서, 山脈이 그려지면서 들이 된 곳이, 또다시 그 다음이 되는 것이다. 가장 忌하는 것은 來龍(山줄기의 主脈)이 나약하고 둔해서 生氣가 없다든지 내용이 비뚤어지고 뭉그러진 것은 吉氣가 적은 것이다. 땅에 生氣와 吉氣가 없으면, 人才가 나오지 않는 것이니, 不可不 山形을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村에 살 때 水中과 水邊을 말할 것 없이 土色과 砂土가 緊密하면, 샘물이 맑은 것이니, 이러하면 可히 살만한 곳이요, 붉고 끈적거리고 검고 디굴거리고 누르고 가늘면, 이것은 死土라, 그 땅에서 나는 샘물은 반드시 惡한 瘴氣가 있는 것이니, 이러하면 附近엔 住宅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물이 없는 곳에는 애초부터 居住하지 못할 것이니 山은 반드시 配水하는 근본을 얻은 然後에, 巴야흐로 많고 盛한 吉함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風水說에 있으므로, 具體的인 論述을 아니하는 바다. 그러나, 陽宅의 터는 陰宅(墳墓)의 터와 달라서 水氣는 財祿을 掌管하는 故로, 물이 많은 곳에 富厚한 집이 많고, 이름난 村과 잘 되는 터전은 山中이라도 시냇물이 聚會해 있는 곳에 世代가 久遠하도록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고, 朝山이 흑시 추악하다거나, 비뚤어졌다거나, 외로운 봉우리가 崩落된 形勢가 있다거나, 山모양이 엇보는 듯한 形局이 있다든지, 奇巖怪石이 山上과 山下에 보인든지, 或은 긴 골짜기와 砂의 언덕이 찌르는 듯 左右前後에 보인다면, 모두 다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반드시 멀면 淸秀하고, 가까우면, 明淨해서 사람이 한번 보아 기쁘고, 반길상이 있어야 하고, 높고 괴상하고 惡한 모양이 없어야만, 吉한 곳이다. 그리고 朝水라는 것은 물 밖에 또 물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작은 냇물과 작은 시냇물이 逆水로 도는 것은 吉하나, 大川과 大江은 決口 逆으로 받아서는 可하지 아니한 것이다. 大水를 逆으로 받는 곳엔, 陽基와 陰宅을 말할 것 없이 처음엔 興하고 發하지만, 오래면 敗하고 滅하지 않는 이 없으니 警戒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또 다시 오는 물은 반드시 龍과 더불어 陰陽이 서로 向하고 습하고, 또 다시 屈曲되고 으쓱하게 朝會하면서 와야 한 것이요, 쏘는 듯이 直線으로 와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런 故로 住宅을 세워 子孫에게 傳하려면, 地理를 보아서 가릴 것이니, 이 여섯 가지는 가장 要緊한 일이다.』

이와 같이, 地로서 가장 重要한 것은 水口와 野勢와 朝山朝水와 陽氣와 水味와 逆水 등 여섯가지 條件을 具備하여야 한다고 한 當時의 說은 風水說을 떠나서 오늘날 科學的인 立

場에서 檢討하여도 當然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垆地에 對한 東洋의 風水說을 檢討할 때에 덮어놓고 迷信에 屬한다고 一笑할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數千年동안 經驗해온 산 知識과 哲學的인 玄妙한 機知를 엿볼 수가 있어, 實로 美와 實際의 人生의 追求라고 하겠다. 그러나, 土地의 地形構成 및 方位가 本人이나 子孫의 禍福吉凶盛衰에 크게 影響을 미친다는 說만은 迷信的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生活上 緊密하게 要請되는 交通關係라든지, 子女教育問題, 市場, 醫療 等の 社會的 環境問題를 오히려 重視하는데 比해, 當時에는 이러한 面을 看過하고 지낸 것은, 教育이나 醫療問題가 社會化되지 않고, 主로 上流階級에서는 家庭單位로 이러한 問題를 獨自的으로 解決했었다. 또, 物資購入의 경우에도, 主人이 直接 購入하러 市場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主婦의 外出이 禁止되었었으며, 物資購入은 下人들이 맡았으므로, 이러한 面에 關한 思慮는 必要하지 않았던 것이다.

當時에는 오히려 居住地에 對한 制限을 重視하였으므로, 上流階級の 住宅地는 이러한 市井과 떨어진 北村의 高臺地를 占居함을 자랑으로 삼고 지냈던 것이다.

Ⅲ. 住宅平面構成에 反映된 住生活의 面貌

1. 建築規制

李朝時代에 있어서는 社會階級制度가 大端히 嚴重하여, 階級에 따라 居住地와 住宅規模의 制限이 甚하게 加해졌었다.

階級으로는 兩班, 中人, 常人, 賤人의 四種으로 分類되었었으며, 이 중 常人이나 賤人은 任意로 큰 집을 建立할 수 없어, 이 階級の 住生活이란 참으로 보잘 것이 없었으며, 住宅이라고 하면, 亦是 中人階級以上の 住宅을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經國大典」卷之六 工典雜令에 依하면, 家舍, 大君 六十間, 王子君公主 五十間, 翁主及 宗親文武官二品以上 四十間, 三品以下 三十間, 庶人 十間이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보아도 常人이나 賤人階級の 住生活에 對해서는, 그 規模나 構造가 얼마나 貧弱했던가를 可히 推測할 수가 있다. 그리고 建築의 礎石 및 裝飾에도 規制가 있었으니, 柱礎 外에는 熟石을 使用치 못하게 하고, 花栱, 眞彩丹青도 禁하고 있었다.

2. 平面上에 反映된 住生活의 面貌

住宅平面上에 있어서는, 中流住宅인 中人들의 住宅平面과 兩班階級인 上流住宅의 平面 사이에는 큰 差異가 없었으며, 다만 크기에 있어서만 差異가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李朝時代 住宅의 代表라고 할 수 있는 上流住宅의 平面을 分析함으로써, 當時의 住生活의 面貌를 大體로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大概 平面을 考察해 보면, 안채, 사랑채, 별당, 행랑채 등이 各各 別棟으로서 配置되어 있다.

숫을大門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이 있고, 이 행랑마당 左右側에 줄행랑으로 방이 즐비하게 配置되어 있다. 이 행랑마당에서 한 便의 中門을 通하면 사랑채가 되고, 행랑마당에서 中央으로 位置한 中門을 들어서면, 中門간 행랑방들이 있고, 다시 東向의 안重門을 通하면, 앞마당이 되고, 여기에 長臺石을 두벌대 내지 세벌대로 쌓아 올려 基壇을 構築하고, 그 위에 안채를 建立하였다.

이 外에도 大廳 뒤로 祠堂이 있고, 또 사랑채 뒤로는 六角形 혹은 八角形의 亭子를 지어 山亭舍廊 等 別堂, 別채가 들쭉, 셋씩 마당을 달리하여 配置되어 있었으니, 所謂 六마당집이니, 七마당집이라고 하는 名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사랑채는 大體로 一字型, 또는 卍字型으로 사랑방, 사랑대청, 침방, 루마루, 뒷마루, 기타 여러 방으로 구성된다. 사랑방은 主人이 居處하는 방으로, 손님을 接待하기도 하고 書齋로도 兼했다. 이 사랑방의 한 쪽으로는 침방이 있고, 또 다른 한 쪽으로는 사랑대청에 접해 있다. 사랑대청 건너편 방은 객실로 이용하고 또 가까이 청직이방을 마련한다. 때로는 장성한 아들이 같이 살 때에는 큰 사랑과 작은 사랑을 구분해서 사랑채에서도 2대가 同居하게 마련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개 卍字型이 된다. 이 外에 사랑에는 글선생, 문객등 大家일수록 사랑의 人口가 많았다.

사랑채와 안채의 連絡을 사랑 뒤로 문을 내던가, 안채 옆으로 작은 문을 내어서 안사랑으로 通하게 하고, 이 門은 대개 주인에게 限하고, 外人이나 下人은 반드시 中門을 通하게 하고 지낸다.

안채의 平面은 大體 卍字型, 卍字型이 많고, 大廳은 子坐午向을 取하고, 正方으로 正子坐 正午向이 아닐 때라도 반드시 南向을 取하며, 大廳을 中心으로 안방과 건너방이 位置한다. 안방의 南쪽으로 꺾어서 부엌이 있고, 부엌에 接하여 찬방이 있으며, 꺾어서 아래채로 쌀광, 김치광, 장작광 등이 있고, 부엌의 西쪽으로 침모방이나 다듬이방 등을 마련한다.

안채라 할지라도 안방, 大廳, 건너방 등은 웃채라 하여 基壇을 높이 쌓아 올린 위에 建立하였으므로, 大廳과 마당과의 높이의 差는 거의 1m나 된다. 大廳은 6間 혹은 8間으로 넓게 잡고 분합문을 달아서 들어 올리게 하며, 분합 밖으로는 뒷마루를 붙였으며, 마루 위에서 마당을 내려다 보게 되어 있고, 大廳은 오늘날의 큰 홀(Hall)의 구실을 하니, 마당에서서 올라다 보는 下人들에게 權威를 誇示하게 되어 있다.

안방은 主婦의 居處로 住宅內에서 가장 안쪽에 位置하였으며, 一切 外人의 出入이 禁止되어 있는 非開放的인 방으로, 바닥은 溫突이다. 부엌과 隣接하여 있고, 아랫목 쪽에는 다락과 벽장이 붙어 있는데, 다락은 바로 부엌 天井 위에 位置한다. 또 웃목쪽에는 웃방을 들이고, 장지문으로 간막였으며, 때로는 안방 옆쪽으로 협실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이

렇게 안방은 옆쪽이나 웃목쪽으로 방을 마련하여 세간방으로 利用하며, 참으로 안방은 內房으로, 當時의 閉鎖的인 生活 모습을 反映하고 있으며, 살림방으로서의 面貌도 나타내고 있다.

전너방은 안방과 大廳을 건너서 位置하여, 주로 며누리가 使用하며, 때로는 딸들이 居處한다. 안방에 比해서 좁으나, 방 앞에는 누마루나 난간 뒷마루를 붙인다.

부엌은 흙바닥으로서 안방 아궁이의 관계로 보통 바깥 마당보다 約 60cm程度 낮다. 부엌은 家族의 炊事를 擔當하는 곳으로서 大家에서는 相當히 넓게 잡는다. 부엌의 上部는 안방의 다락이 되어 衣料 또는 室內用品, 혹은 食器, 마른 飲食 等の 收納庫로 利用한다. 大家에서는 부엌 넓이만큼 다락의 넓이도 넓다.

안방과 부엌의 往來는 大廳을 통해서 一一이 신을 신고 다녀야 하는 不便과, 바닥이 낮으므로 말미암은 勞力의 浪費는 大端히 크다. 오늘날 高唱하는 作業動線의 短縮은 全히 考慮되지 않았고, 이는 부엌이 下人들의 作業場이라는 데에도 많이 基因되고 있다.

부엌과 直結하여 마련한 찬방은 대개 마루방으로 꾸며졌었으며, 食床을 配膳하는 配膳場과 食器, 食床 等の 收納場所이기도 하였다.

이 찬방은 대개 바닥에는 마루를 깔았었는데, 이는 飲食을 取扱하는 곳이므로, 濫突방이면 혹시 飲食을 取扱할 때에, 傷할 憂慮가 있으므로 이렇게 꾸민 것으로 생각되며, 역시 緻密한 配慮라고 하겠다.

大廳 뒤로 따로 祠堂을 짓고 祖上의 神柱(位牌)를 모신다.

아랫채의 방이나 혹은 뒷채의 방들은 침모방으로, 家族의 衣服一切를 바느질하는 데 使用하거나, 또는 다듬이방으로 洗濯한 衣服들의 푸새, 다듬이질, 다리미질 등을 하는 안참자기의 방으로 利用한다.

이 외에 大家에는 시골서 上京한 親戚, 親知들이 많으니, 이 女人들의 居處하는 방으로, 또는 상직군이라 하여 당직하는 女人들의 방으로도 活用하였던 것이다.

안채 周圍에 둘러싼 中門간 행랑채는, 동자아치(밥짓는 일을 맡은 女子 下人), 차집(飲食을 맡아 管理하는 女子), 반빛아치(찬을 만드는 일을 하는 女子 下人)들의 방으로 使用되었다.

便所는 안채, 사랑채, 바깥 행랑채 등에 따로따로 마련하되, 比較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 位置를 擇해서 가장 原始的인 形態를免치 못한 채로 만들어졌었다.

沐浴設備는 上流住宅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큰 합지 그릇에 물을 담아서 방 안에서 씻는 程度로 지내던 當時의 生活狀況을 推測할 수 있다.

하여간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李朝時代의 平面은 亦是 그 當時의 社會生活樣相을 如實히 엿볼 수가 있다. 한 住宅이 안채, 사랑채, 別채, 행랑채 等 大家일수록 여러 채로 建立하여서 各各 그 사이에 마당을 마련하고, 空牆과 中間 행랑으로 區分하고 있는 貌習은,

住宅을 살기 便한 家庭生活의 容器라는 本來의 意義와는 달리, 오히려 그 目的이 君臣 佐使가 秩序 整然하게 벌려 있다는 權威意識을 誇示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上流階級에서는 家族數보다 훨씬 많은 使用人을 雇傭하고, 兩班은 所謂 六間 大廳에서 스탠치마를 끌고 다니는 人形놀음으로서 滿足하고, 勞動을 賤視하던 當時의 慣習에서 오는 惰性이 平面에도 그대로 反映되어서, 動線의 短縮과 勞力의 合理性 같은 必須要件이 度外視되고 있다.

또 人間生活의 基本인 炊事空間이나, 便所, 沐浴室 設備에 關한 衛生的 觀念이나, 이 施設의 必要性이 稀薄하고, 住宅平面의 空間構成이 閉鎖的인 生活內面과, 家父長의 權力誇示와 特權階級 等の 威力을 推測할 수가 있어, 亦是 當時의 封建主義의 殘滓를 볼수 있다고 하겠다.

Ⅳ. 住宅構造와 室內裝置에 나타난 住生活의 情趣

1. 建物の 外觀

李朝時代의 住宅建築은 木構造로서 基本形態는 方形 即 正方形이나 長方形의 平面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며, 基壇 위에 建立하였으므로, 建물이 높이 지어져서 여기서 주는 印象은 高大廣室이란 表現 그대로 威嚴堂堂해 보인다.

花崗岩의 長臺石을 쌓아 올려서 基壇을 構築하고, 그 위에 육모뿔로 다듬은 柱礎石을 놓고, 礎石 위에 四角形의 나무결도 곱게 다듬은 春陽木 기둥을 세우고, 기둥머리에는 도리를 돌린다. 도리에는 남도리(角材)와 굴도리(丸材)가 있으며, 民家에서는, 흔히 남도리를 하고, 소로반침을 한다. 지붕틀은 三椽, 五椽 및 七椽이 있으나, 大家에서는 七椽 지붕틀로 하여 建物の 幅이 넓고 아울러 規模가 크다.

大廳 中央의 前後 기둥을 連結하는 대들보는 雄壯하게 보이며, 추녀 끝의 서까래의 自然美며, 서까래 끝에 단 浮椽은 風趣의이다. 지붕 물매의 曲線 또는 처마 끝이 兩端에서 휘어올라가고, 처마 허리힘의 曲線은 韓國的 美라고 하겠다.

外觀에 나타난 門, 窓戶 等の 纖細하고 美麗하며 風趣的인 문살의 여러 種類, 亦是 當時의 上流社會의 兩班들이 얼마나 豪奢하고 멋있는 住生活을 하였던가 推測된다.

住宅의 大門은 솟을대문으로 즐행랑채의 지붕보다 한층 더 높게 한 高柱大門을 달았다.

뺨은 사괴석을 쌓고 上部는 맛빳지붕 모양으로 암기와와 솟기와를 덮고, 용마루를 만들고, 담벽에는 連續角渦文 등으로 裝飾하였다. 또는 벽돌로 여러 가지 무늬를 놓아 쌓기도 하였다. 特히 앞마당에는 벽돌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花紋을 그려서 花牆을 쌓아 裝飾하기도 하였다.

2. 內部造作과 室內裝置

바닥은 大廳마루 外의 大部分의 방은 溫突방으로서 장관을 하였다.

大廳마루는 廳板을 井字形으로 같은 우물마루, 또는 亞字形으로 같은 亞字우물마루로 꾸며지며, 뒷마루는 대개 장마루로 꾸며졌다.

大廳마루의 天障은 연등天障으로 지붕 밑의 서까래가 그대로 露出되어서 대들보, 도리, 마루대공 등 지붕의 架構材가 아래서 쳐다보이게 되어 있어 素朴한 멋과 巨大한 木材의 雄壯한 맛은 韓國民族의 情趣로 自負하였다.

더우기 大廳마루에는 四分間으로 된 세살문의 分間門을 여름이 되면, 들췌에 매달고, 우물마루 바닥에는 화문석을 깔고, 마당을 내려다 보는 것이야말로 敢히 다른 民族이 따르지 못하는 風趣라 하겠다.

다음에, 溫突방에는 기름먹인 角狀張板을 발라 놓고, 그 위에 콩땀으로 거울같이 윤을 낸 溫突바닥이야말로 溫和한 坐禮의 나라 韓國의 자랑이라고 하겠다.

특히 사랑방 아랫목에는 보리를 깔고 안석을 기대며, 長枕과 四方枕을 놓고, 오른쪽 벽에는 文匣을 놓고, 그 위에는 체경과 蘭草盆, 필통을 얹어 둔다. 웃목에는 四方卓子를 놓고, 書庫에서 꺼내온 隨時로 보는 책, 其他 여러 가지를 얹어 둔다. 보리의 왼쪽에는 方席을 놓아 손님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보로 앞에는 火爐, 담배대꽃이, 담배함, 재떨이, 硯床, 요강, 타구를 늘어 놓는다. 웃목에는 과일상을 놓고, 한편에 가계수리를 놓는다. 壁에는 고비, 簇子를 걸고 門위에는 額子를 높이 단다. 겨울에는 文匣 뒤로 屏風을 치고, 屏風 뒤로 房帳을 친다.

이 光景은 想像만 하여도 端雅한 선비가 明窓淨机와 함께 風趣의인 生活을 悠悠自適하는 貌習이 떠오른다.

안방은 主婦專用的 방이므로 裝飾도 가장 多彩롭고 아름다우며 優雅하게 꾸민다.

이 방에는 鏡臺 같은 化粧道具와 櫥櫃類를 벽에 붙여 配置한다. 櫥櫃類로는 單層櫥(머릿장), 二層櫥, 三層櫥, 四層櫥, 衣巨里, 卓子櫥, 函, 櫃, 鏡臺나 柱聯鏡 등을 들겠으며, 屏風도 안방에는 繡屏風으로 花鳥 등의 華麗한 것이 어울린다. 겨울에는 역시 房帳을 친다.

大略 以上과 같은 室內裝置를 하였으며, 안채의 大廳 바깥 기둥이나 사랑채의 바깥 기둥에는 흔히 木柱聯을 붙이고, 交窓 위에나 사랑방 장지를 위에는 懸板을 단다.

木柱聯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吉語를 전각하여 裝飾하였었다.

膝下兒孫萬世榮. 春光先到吉人家.

和氣自生君子宅. 顏曾家裡子孫賢.

一孔孟中風俗美. 一動天下無難事.

天倫歲月人皆羨. 向陽和氣日長春.

近水樓台先得月.

V. 結 語

오늘날 우리 民族은 急激히 들어온 西歐文化의 影響으로 生活樣式에 많은 變化를 가져왔다. 生活의 合理性과 科學化를 模索하여 文化住宅을 建立하는 데에 吸吸하였다. 이 文化住宅인 洋式住宅은 椅子式 居室과 寢臺設備인 寢室과 改良된 부엌, 沐浴室, 便所, 中央暖房法의 採擇 等, 눈부실만큼 많은 住生活의 發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文化住宅이 果然 우리들의 生活感覺을 滿足시켜 주는가 하면. 어딘가 釋然치 않은 點도 없지 않다. 더우기 이러한 文化住宅이 生活上에 주는 合理性은 認識하지만, 위에서 論한 바와같이 우리들의 祖上이 지내던 것과 같은 風流나 情趣는 人間의 機能이 弱화될 程度로 機械文明이 發達한 現實에서는 오히려 더 渴望된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들의 祖上이 살고 지내온 住生活을 歷史的으로 더듬어서 分析함으로써, 우리의 住宅이 가진 바 特色을 되도록 살려 不合理한 點은 이를 改善하고, 不完全한 것은 補完하여 韓國的 住生活의 發展方向을 찾아 보아야 하겠다. 우리는 無批判的으로 外來洋式에만 吸吸하지 말고, 오직 우리 韓國民族의 生活容器로서의 適合한 住宅의 새로운 기들의 部分的 再檢討와 住生活의 方向을 살펴보기 爲한 하나의 提示가 되었으면 한다.

參 考 文 獻

1. 朴鍾和：民衆의 生活(住宅) 郷土서울 第3號(1958)
2. 李重煥著, 李翼成譯：擇里志 乙酉文庫 62. (1971)
3. 經國大典 朝鮮總督府中樞院版 卷之六 工典(1934)
4. 韓國文化史大系 IV 風俗·藝術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5. 朱南喆：韓國住宅의 變遷과 發達에 關한 研究
6. 美術·考古學用語集 建築篇 乙酉文化社
7. 關野貞：朝鮮의 建築と藝術 岩波書店(1941)
8. 朝鮮古蹟圖譜 11卷 朝鮮總督府
9. 村田治郎：南鮮民家の家構私見, 朝鮮と建築 第4輯5號
10. 螺炎 今村柄：朝鮮の家屋建築に關する話 第8輯6號
11. 野村孝文：朝鮮住宅の 一考察 第17輯5號